

Immigrant Women Tell Their Stories (2004, Roni Berger) 서평

이민경*

이주문제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고찰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의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여성들의 이주를 다루는 ‘연구대상’을 지칭하는 매우 협소한 의미에서부터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이주문제를 고찰하는 ‘연구관심과 주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나 ‘연구주제’의 의미를 넘어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이주문제를 바라본다는 비판적 시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주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심층인터뷰로 풀어낸 이 책은 이러한 여성주의적 시각의 다양한 층위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혼 후 미국인과 재혼하여 아이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저자의 경험은 그 자체로 이주여성들의 삶의 흔적과 의미망들을 통찰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틀로 작동하고 있다. 이 책이 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넘어 ‘공감’과 ‘민감한 듣기’를 통한 연구자의 통찰이 돋보이는 미덕을 지닌 이유다.

연구자가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로 부터 연구주제를 풀어가는 접근방식은 질적 연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연구자가 ‘연구’에 연계된 자신의 경험과 삶을 되돌아보는 방식을 통해 연구자의 위치를 ‘커밍아웃’ 함으로써 연구주제 혹은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과 관점마저 맥락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분석 또는 해석하는 작업은 연구자의 시각

* 대구대, 교육학, minkyung0503@daegu.ac.kr

과 입장을 통해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은 연구대상에 대해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이며, 연구대상을 해체하여 해석자의 시각에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자의적 변형’의 기능도 수반된다. 이점에서 해석이란 “의미의 생성을 위한 창조적 오독의 역사”일 수 있다. 모든 해석행위는 이 창조와 오독의 모순과의 긴장관계에서 나온다. 물론 그 경계에서 균형을 잡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의 해석을 절대적 진리로 간주함으로써 창조가 아닌 오독의 악순환에 빠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해석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연구작업을 뒷받침하는 페미니즘 이론에 대한 정리와 분석, 이주 여성에 대한 경험적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경험을 개인과 사회구조의 맥락 속에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자신과 18명의 여성들의 이주경험을 고찰하고 있는 이 책은 물리적, 문화적, 상징적 경계선에 선 이주 여성들의 삶과 이면의 의미에 대한 보고다. 연구자로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주여성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현장 전문가로서 활동해 온 연구자의 경험적 통찰이 잘 녹아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책의 말미에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이주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기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장전문가로서의 저자의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주’라는 삶의 무늬가 여성들의 삶에 새겨놓은 다양한 편린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녹아 있는 이 책은 여성들의 이주경험이 남성들의 이주와는 매우 다른 의미들을 형성하고 있음을 매우 풍부한 서사로 드러내주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자본, 나이, 민족적 배경, 이주의 흐름(미국/오스트레일리아/이스라엘 등)도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주 동기도 결혼, 노동, 학업, 자녀교육 등 다양하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유로 강요된 이주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출신국 배경도 매우 다양하다. 오스트리아/보스니아/쿠바/구소련/과테말라/인도/이스라엘/레바논/멕시코/파키스탄/필리핀이다.

여성들의 서사는 이주에 대한 객관적 외부관찰자의 시점이 아니라 이주경험에 대한 주관적 통찰과 현실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를 ‘내부 이야기(inside story)’라고 명명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자주 보다는 왜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외부자적 시선은 이주자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그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주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 저자의 관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 복원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다.

기존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적 관행은 여성의 이주가 남성의 이주에 종속되어 있거나 남성의 이주와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젠더가 여성의 이주 경험을 설명하는 변수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도, 젠더문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별화된 구조나 제도 혹은 사회적 관계의 일방적인 영향으로 해석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젠더가 과정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위계로 설명될 경우, 성별화된 관계를 오히려 변하지 않고 견고한 것으로 그려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정치경제적 구조를 간과하지 않으면서 이주여성들의 이주의 동기와 이주의 경험을 중심에 위치지움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비껴가고 있는 듯하다. 저자는 기존의 이주연구들은 여성에 대해 다룰지라도 젠더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병리학적 렌즈를 통해 결핍된 존재이거나 젠더화된 구조의 피해자로서만 이주여성들을 연구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관행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관점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통하고 있다. 때로는 매우 사적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는 연구자의 맥락화하기와 공감하기의 긴장 속에서 사적인 영역을 넘어 여성들의 개별적 이주경험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는가를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주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이주 전과 후 그리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현실을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여성의 시각과 관점을 권력의 문제와 연결하는 제도적인 페미니스트의 오래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책이 진부하게만 느껴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주 여성들의 에너지와 역량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이주여성들을 긍정적인 이주주체로 기술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도 분명하게 감지된다.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대부분 가족의 삶을 이끌고 성취를 이루어 낸 존재로 부각시키면서 이주여성들의 적응력과 파워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무엇보다 다양한 이주여성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이주를 통해 그들이 얻은 것과 잃은 것, 그리고 어떻게 익숙한 세계를 떠나와 낯선 곳에서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매우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의도는 결혼이주여성이나 그 자녀들을 그들의 의지에 반하는 공동체에 제한하지 않고, 그들이 귀속된 정체성에 마주하여 그들의 자율적인 행위를 전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기존의 여성주의적 입장과 관점과도 맞닿아 있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의 이주여성들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담론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주여성들을 분리와 대상의 관점에서만 사유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들을 타자화, 도구화 하는 방식에 성찰적 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보편적 권리 존중과 평등주의적 상호성은 그 중요한 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적/공적, 주체/타자, 집단/개인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여성주의적 시각과 관점은 매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이 책이 던지는 정책적 시사점도 성찰적 지점을 제공한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이주정책의 패러다임을 재구조화한다는 것은 이주자들의 보편적 권리와 인정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며, 집단적 정체성과 개인의 서사를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우리사회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주자들을 분리적 시선으로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는 도구적 관점을 넘어 지구화 흐름을 구성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적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능동적 현실인식과 주체적 역량, 다양한 삶의 이해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그러나 자주 간과되어온 이주문제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관점의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